

인체미의 이상형에 따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변화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교수 유 태 순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강사 전 경 숙

目 次

I. 서 론
II. 인체미의 특성 및 변천과정
1. 인체미의 특성
2. 인체미의 변천과정
III.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 및 변화
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
2.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변화
IV. 시대에 따른 인체미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과의 관계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미적 표현대상으로서 인체에 대한 탐구는 인간의 형태와 존재를 유형화하려는 태도이므로 우주의 질서원리로서 프로포션의 문제와 항상 관련되었다. 프로포션에 관한 연구는 만물의 척도인 인체가 주가 되는데, 인체는 이념이 가장 완벽하게 감각적인 실존으로 실현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체는 미적 표현의 중요한 대상이며 미적 범주중에서 기본적인 인체미는 프로포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완벽한 신체비례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으며 목

표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인체미의 이상형은 각 시대마다 인체를 재구성하게 하고 그 시대의 유행복식에 표현되며 복식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이상형에 도달할 수 있다. 유행복식은 이상적인 인체 위에 표현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의복이란 일상생활의 실천에 있어서 시대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이 전위된 형태이며,¹⁾ 한 시대의 사회적 이상체형은 언제나 의복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러한 이상형은 그 시대 모든 복식의 토대를 형성한다.

조형예술의 장르들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1) 이기웅, 박종만 역, 풍속의 역사Ⅱ : 로네상스, 까치, 1988, p.48.

미의식이나 예술양식은 그 근원에 흐르는 시대정신의 산물인 것으로, 결국 복식은 그 시대 그 사회의 생활감정의 표현내지는 상징으로서 같은 의미를 가지며, 인체미의 이상형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각 시대에 따른 인체미의 이상형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양식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시대에 따라 미의 이상을 추구하는 인체미의 특성과 발전양상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인체미의 이상형에 따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변화를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복식디자인 전달의 스타일화와 이미지 표현에 중점을 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구분되는 시점인 20세기 초²⁾부터 1994년까지 시기를 한정하고 문헌연구를 토대로 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자료는 Vogue지에 수록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20세기의 각 10년을 주기로 그 시대적 변천에 따른 인체미의 이상형을 파악하고 패션의 변화를 나타내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II. 인체미의 특성 및 변천과정

1. 인체미의 특성

인체미는 의복과 인체의 상호조화로 인해 미를 창조하며, 인체미의 이상형은 의복과 인체에 의해 창조되는 새로운 미의 이상을 의미한다.

임범재³⁾는 미적 범주중에서 기본적인 인체미는 프로포션으로 이해할 수가 있으며, 인체의 프로포션은 시대, 민족, 개인 등 취미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르므로 비례의 절대적인 수치는 있을 수 없고 오직 비교적, 이상적인(ideal) 수치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 시대의 인체미는 특수한 미적 이상형을 가지고 있다.⁴⁾ 이상은 여러가지 점에서 보아 구체적으로 육체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시대의 인간은 언제나 관념으로부터 탄생하고 결국 삶의 다양한 요구들로부터 만들어 진다고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가능한 한 적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응은 자세, 몸가짐, 동작, 복장 다시말하면 모든 생활양식에 의해서 표현된다.

기본적인 인체구조는 시대에 상관없이 일정하지만, 인체미의 이상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시대에 따른 인체미의 이상형에 접근하기 위해 허리, 엉덩이, 가슴, 발 등을 인위적으로 죄거나 구속하거나, 다이어트와 운동 등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 시대 미의 이상형을 추구할 수 있다.

예를들어 19세기 후반 중산계층에서는 이상적인 체형을 추구하기위하여 다이어트를 하였으며⁵⁾ 최근 에어로빅의 인기와 적합성 또한 다이어트산업의 종속물로서 인체미의 이상형에 접근하기 위한 표현으로 일반화되었다.

이상형은 아름다운 체형, 아름다운 의복, 인체와 의복간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이상으로서 나타낼 수 있으며⁶⁾ 특히, 특정한 체형과 특은 인기 있는 것이 되어서 대부분의 여성은 미의 이상형에 가까와지기위해 인체를 재구성하고 이상적인 자세와 제스처를 사용한다.

어느 사회에서든 이상적 신체의 다양성은 남성 이든 여성이든 시각적으로 제시된 신체로 쉽게 확인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 그리이스시대와 고딕시

2) 우주형, 예술로서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9.

3) 임범재, 인체비례론 : 고대로 부터 르네상스까지, 서울 : 홍익대학교 출판부, 1985, p.9.

4) 이기웅, 박종만 역, 풍속의 역사Ⅳ : 부르조아의 시대, 까치, 1088, p.1.

5) Craik, Jennifer, THE FACE OF FASHION Cultural Studies in Fashion, Routledge, 1994, p.65.

6) 김진구, 이윤희, 이은숙 역, 가시적 자아-복식의 관점에서-, 경춘사, p.98.

대의 예술작품에 나타난 여성나체와 20세기의 유행신체 그리고 플레이걸 잡지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신체비율이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체미의 이상형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인체각부의 구성요소는 동일하지만 그 형태나 배치는 각 시대마다 다양하게 변화되어 온 것을 그 시대 누드화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⁷⁾

2. 인체미의 변천과정

인체미를 표현하는 일은 선사시대부터 행해졌으며 선사시대에는 여성의 속성인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여 가슴과 복부 그리고 엉덩이를 극단적으로 풍성하게 표현하였다. 대표적인 예로서 'Willendorf의 비너스'(그림 1)는 상징하는 바와 같이 가슴은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마치 두상이 두 개 놓여있는 형태를 이루고 복부와 엉덩이는 거의 구분되지 않을만큼 풍만하였으며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4등신이다.



(그림 1) Venus of Willendorf(B.C 1500~ 1000년경)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 Vol.1, p.38.

이상미라고 부른 것은 그리이스에서 시작되었으며, Polykleitos(B.C. 450~420년경)가 세운 인체의 카논(Canon) 즉, 인체부분 상호간의 올바른 비례의 확립에 의한 인체를 재현하고자 하였다.⁹⁾ 그리이스 최후의 걸작인 'Milo의 비너스'(그림 2)는 가슴의 간격, 가슴과 배꼽사이, 배꼽에서 다리 부분까지가 동일하며 고전적인 기준에 맞는 것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의 상징으로서 이미지화되고 있는 이상적 완벽의 표준이 되는 대표적인 작품이며 8등신이다.



(그림 2) Venus From MILO(B.C 140년경)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 Vol.2, p.88.

중세에는 종교적 이상주의에 의해 큰머리와 높은 허리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좁은 어깨, 빈약한 가슴, 높은 허리, 둥글고 볼록한 배, 넓은 골반, 긴 다리이며 무엇보다도 복부가 크게 튀어나와 있다. 15세기의 전형적인 고딕누드인 'Memlinc의 이브'(그림 3)는 가슴간격보다 가슴과 배꼽까지의 거리가 두 배나 아래쪽에 있으며 가슴은 극히 빈약한데 비해 복부가 믿을 수 없을만큼 길고 튀어나와 있으며 7등신이다.

7) 이성은, 인체의 양상에 관한 회화적 표현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9.
8) 박숙현, 이정옥, 15~16세기 회화에 나타난 여성의 인체미와 복식-혹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18권 3호, 1994, p.298.
9) 박용만, 인체의 이상적 형태와 비례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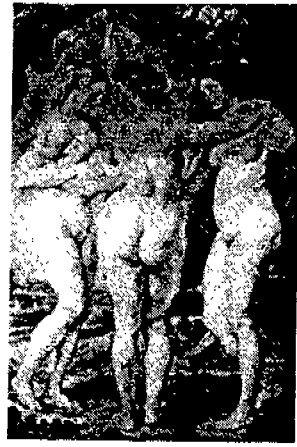
(그림 3) Memlinc의 '이브'
누드의 미술사, p.23.

굴곡이 없는 몸을 이상형으로 여겼다. 'Botticelli의 비너스의 탄생'(그림 4)은 이상적인 미를 표출하기 위해 이마와 코의 선이 실제보다 곧게 되어있으며 얼굴은 보다 타원형을 유방은 동그랗게 표현되었다. 중세의 작품에 비교할때, 더이상 복부의 지나친 돌출은 표현하지 않았으며 9등신이다.

바로크 로코코시대에는 유한계급의 여성만이 몸을 움직이지않고 사치를 부릴수 있기 때문에 뚱뚱한 여성이 행복과 미의 상징으로 여겼다. 따라서 크고 둥근가슴을 강조하였고 가슴돌출과 더불어 엉덩이의 돌출이 시도되었다.¹¹⁾ 'Rubens의 삼미신'(그림 5)은 풍만하고 근육적인 여성의 인체미가 표현되어서 살이 겹쳐질만큼 뚱뚱하였으며 8등신이다.



(그림 4) Botticelli-La Nascita di Venere(1486년경)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 Vol.5, p.35.



(그림 5) Rubens-Die Drei Crazien(1638~40년경)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 Vol.6, p.55.

르네상스시대에는 그리이스의 영향을 받아들여 인체를 정직하게 받아들였다.¹⁰⁾ 그러나 그리이스 로마시대처럼 인체를 이상화하지 않았으며 순수하게 관능에 몰입한 현세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빈약한 높은 가슴, 긴 배로 원통형의 거의

고전주의시대에는 여성의 인체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성의 인체에서 만족스런 기하학적 형태와 관능적인 감각을 찾아냈기 때문이며¹²⁾ 긴 몸통에 두 개의 잘 다듬어진 반구형태의 크고 오목한 가슴을 강조하였다. 'Goya의 나

10) 박용숙, 현대미술의 빈성적 이해, 서울 : 집문당, 1988, p.30.

11) Hollander, A. L., Seeing through clothes, N.Y : Avon Books, 1975, p.111.

12) 김봉구, 미술해부학, 서울 : 선일문화사, 1983, p.9.

체의 마하'(그림 6)는 흐르는 듯한 곡선미의 아름다움이 표현되었고 특히 가슴이 크고 상체에 올라 붙은 오목한 가슴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7등신이다.



(그림 6) 고야의 '나체의 마하'(1798~1805)
세계의 名畫 Vol.4, p.40.

낭만주의시대에는 근대시민계급의 이념을 낡은 자연스럽고 근대적인 육감을 드러낸 인체 즉, 앞으로 돌출한 큰 가슴, 가는 허리, 뒤로 튀어나온 큰 엉덩이의 강조로 측면에서 극도로 변형된 인체미를 강조하였다. 'Boucher의 목욕후의 휴식'(그림 7)은 관능적으로 풍만한 여성의 균형잡힌 인체를 표현하였으며 7등신이다.

19세기의 이상적인 인체미는 콜셋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모래시계형(아우어글라스 실루엣)으로 표현되었는데, 여성의 신체를 과장시키거나 극도로 줄라매는 모순된 특성을 갖고 있었다. 'Tissort의 배위의 즐거운 한때'(그림 8)는 넓은 어깨, 풍만한 가슴을 강조하였으나 엉덩이를 크게 부풀림으로서 허리는 오히려 조여졌다. 인체미는 버슬스타일(bustle style)의 실루엣에 의해 더욱 강조적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Boucher-Diana resting after her Bath(1742)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 Vol.6, p.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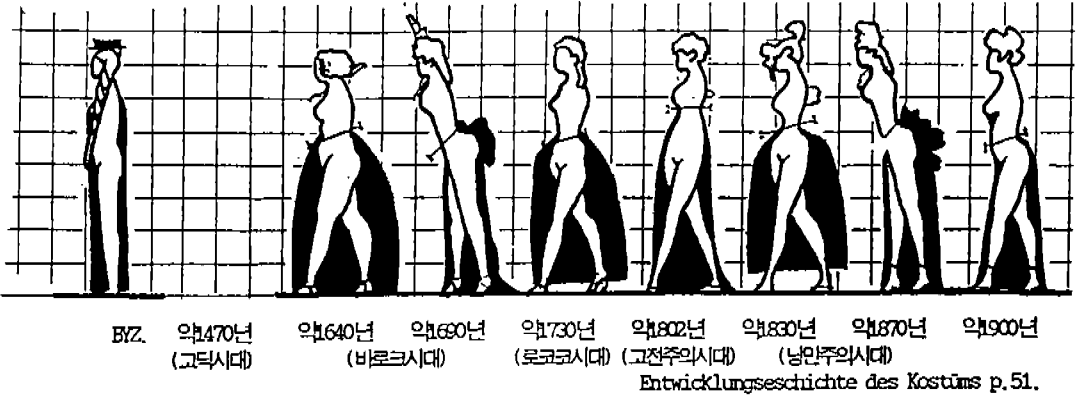


(그림 8) Tissort의 '배위의 즐거운 한때'(1874)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 Vol.6,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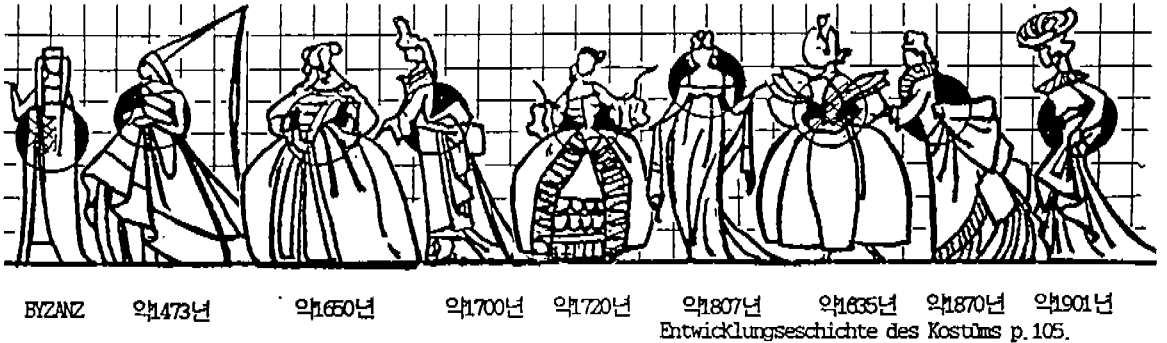
인체미의 이상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것은 <그림 I> <그림 II>와 같다.¹³⁾

13) Rolf, Elli, Entwicklungsgeschichte des kostüms, Böhlau rerlag Wien, 1979, p.51, 105.

<그림 I> 시대적 미의 이상형에 따른 인체 프로포션과 자세의 변화



<그림 II> 서양복식의 실루엣 변화(약 1000년경 부터 현재까지)



III.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 및 변화

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일러스트레이션의 한 분야로서, 복식디자인 또는 복식과 관련되는 액세서리, 패션전반까지를 포함하는 모든형태의 내용과 주제를 시각화하여 그림으로 전달하는 표현양식을 말한다.¹⁴⁾

즉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일러스트레이션이 가져야 하는 목적을 패션의 의미와 가치에 두고 표현한 것이다.

패션의 대상이 의복뿐만 아니라 기타 장식물 또는 인간의 생활방식 등과 그 이상까지도 포함한다고 할때,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복식디자인 또는 복식과 관련된 액세서리, 패션전반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내용과 주제를 디자인하여 물질적인 목적달성에 이르도록 하는 객관적인 표현방법이다.

따라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인체와 복식을 표현주체로 해서 패션전반의 내용과 주제를 시각화하여 그림으로 전달하는 표현양식을 의미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여러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표현에 있어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과장은 패션의 일부로서,¹⁵⁾ 선과 프로포션의 과장에 의해

14) 김 청, 패션과 예술, 금요일출판사, 1979, p.347.

15) Fashion Illustration, 라사라고육개발원, 1991, p.8.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다. 따라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인체미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고 변화하는 것은 조형예술에 있어 극히 중요한 일이며 새로운 미적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의 유행을 설명하는 매체가 되는 것으로서 유행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즉 디자인의 기본 아이디어를 설명해야 하며 즉각적으로 해석될 수 있게 그려져야 한다. 따라서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는 고유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방법과 예술에 있어서 유행을 따라야 하며 정확한 표현능력을 가져야 한다.

세째,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전달을 요하는 현대사회에서 독자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위치는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것은 또다른 시각예술분야로서의 사진에서 제한된 여러가지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사실 사진은 대상을 기록하는데 있어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필요한 장면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들뿐 아니라, 용모와 형태 또는 악세사리를 신속히 바꿀수 없기 때문에 사진작가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더불어 우아하고 재능까지 겸비한 모델에게 완전히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는 카메라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라인도 표현할 수 있으며 강조할 수도 있고 단순화시킬 수도 있다. 또 의상뿐만 아니라 제시된 모델의 타입까지 아름답게 보이도록 그릴수 있다.

따라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가장 적당한 모델, 가장 알맞은 헤어스타일과 악세사리, 심지어 의상 그 자체까지 만일 필요하다면 신비로운 매력까지 첨가시켜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즉석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다.¹⁶⁾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목적에 따라 다른 표현이 요구되는데 하나는 복식제작과 연결되는 설명

도 기능의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지시보다는 복식 전반의 이미지를 작가의 해석과 개성에 따라 표현한 것이다. 즉 전자를 '디자인화'라 한다면 후자는 '이미지화'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이를 편의상 '스타일화'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분하여 칭하기도 한다.¹⁷⁾

19세기 말까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사실적 재현에 그친 스타일화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오늘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복식에 있어서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거울이며 회화나 사진 등의 시각예술분야와의 조화와 경쟁관계를 이루면서 독자적인 대중예술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미지 표현에 중점을 둔 20세기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고찰하고자 한다.

2.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변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판화의 개발과 쿠편베르그에 의한 인쇄술의 발명에서 시작되어 패션잡지와 함께 성장하였고 패션잡지를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20세기 이후 여러 미술사조의 영향으로 그 기법이나 표현양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발전의 폭은 커져갔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9세기 낭만주의의 반발로 보다 현대적인 감각의 표현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20세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예술운동과 밀접하게 결합한 획기적인 시기였으며 아르누보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이 그 시대 인체미의 이상형을 창조하였는데, (그림 9)는 Charles Dana Gibson의 작품인 '김슨 걸'이다.

16) Ibid., p.13.

17) 박미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서울 : 경춘사, 1987, p.2.



(그림 9) Charles Dana Gibson의 'Gibson girl'(1990)
The complete guide to Fashion Illustration, p.13.

1910년대에는 아르누보양식의 장식성과 오리엔탈 색채가 화려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이끌어 정교하고 산뜻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당시 시대 첨단의 감각을 지닌 대표적인 디자이너 Poiret는 그의 작품에서 보여준 단순한 선과 선명하고 강렬한 색상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새로운 시각세계를 열어 놓았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을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공헌하였다. (그림 10)은 1912년 Barbier의 작품이며 Poiret의 디자인을 스케치한 것이다.



(그림 10) Georges Barbier(1912, 4)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p.33.



(그림 11) Erté(1927)
ERTE, p.216.



(그림 12) Edouard Benito(1938)
Vogue, New York July 15., Fashion and Suralism, p.219.

20년대에는 당시 예술작품이 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큐비즘과 아르데코 그리고 새로운 여성관이 드로잉에도 반영되어 정통 아르데코양식의 완숙한 경지를 보여주었다.¹⁸⁾ (그림 11)는 1927년 Erté의 작품으로 아르데코양식을 대표적으로 표현하였다.

30년대에 접어들자 패션은 직선적인 실루엣에

18) Ibid., p.5.

서 여성적인 실루엣으로 전환되는데 새로운 실루엣의 탄생과 함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도 그래픽적 이미지에서 회화적 이미지¹⁹⁾로 그 양상을 달리 하였으며 초현실주의가 패션의 영역에 나타났다. 그러나 3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사진작가들의 작품이 패션 잡지에 등장하기에 이르러 일러스트레이션의 후퇴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한다.²⁰⁾ (그림 12)은 1938년 Benito의 작품으로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를 표현하고 있다.

1947년 Dior의 뉴 룩(new look)이 발표되고 잡지들은 정상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하였으나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사진작가와 그 영역과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다. (그림 13)은 1947년 Dior의 대표적인 작품인 뉴 룩 슈츠이다.



(그림 13) Christian Dior(1947)
Chanel and her World, p.228.

50년대에는 더욱 선의 강조와 단순화의 경향으로 흐른다. 배경처리도 생략되고 색채사용이 현저히 줄어들며 붓, 펜, 콘테 등에 의한 표현적인 실루엣이 강조되었다.²¹⁾ (그림 14)는 1950년 Keogh의 작품으로 표현방법이 단순화되었으며 새로운 색채사용법이 오히려 강조되었다.

19) Ibid., p.6.

20) Barnes, Colin, The Complete Guide to Fashion Illustration, North Light Books, 1988, p.33.

21) 박미래, Op.cit.,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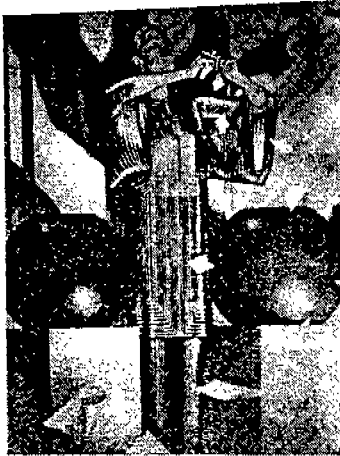
(그림 14) Tom Keogh(1950)
Fashion drawing in Vogue, p.185.



(그림 15) Antonio Lopez(1960's)
The complete guide to Fashion Illustration, p.25.

60년대에는 팝아트가 구체적인 조형의식으로 대두되고 사진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소수의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들만이 활동의 명맥을 이어갔다. (그림 15)은 60년대 Antonio의 작품으로 대담한 테크닉과 팝아트적인 표현기법을 강조한 작품이다.

70년대에는 복고풍의 로맨틱무드가 부활함으로써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60년대의 단순한 선을 표현적인 선으로 바꾸어 놓고 길이의 강조에 따라 프로포션도 과장되었다.²²⁾ (그림 16)은 1979년 Bergdort Goodman의 작품으로 이전시대보다 훨씬 표현적인 방법이다.



(그림 16) Bergdort Goodman(1979)
Fashion Illustration Today, p.130.



(그림 17) Nadja(1983)
Fashion Illustration Today, p.110.

80년대에는 인체의 새로운 해석과 그에 따른 표현양식이 변화하여 현재에까지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그림 17)는 1983년 Nadja의 작품으로 표현 기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체를 강조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와같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그 역할변화는 예술가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알 수 있다.

IV. 시대에 따른 인체미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과의 관계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중산계급의 세력이 확대되고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19세기말의 크리놀린(crinoline)과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의 인위적인 부풀림은 사라지고 현대의 새로운 여성은 건강하고 밝게 생활하는 이미지를 추구하여 인간의 자연스런 체형을 기본으로 해서 인체미의 이상형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시대에 따른 인체미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세기의 각 10년을 주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00년대

20세기 초 인체미의 이상형은 ‘매력있고 아름다운 곡선미’의 여성이었다.²³⁾ 전 시대보다 더욱 발달된 가슴을 강조하여 큰 가슴에 비해 힘은 오히려 빈약했으며 새로운 형태의 코르셋에 의해 가슴은 더욱 풍만하게 표현되어 난처할 정도였다.

당시 여성의 이상적인 이미지는 김슨 걸 스타일(gibson girl style)의 창시자인 Charles Dana Gibson에 의해 표현되었다. S-curve Style의 김슨 걸 스타일은 양 어깨는 넓게 과장시키고 가슴을 부풀리며 허리는 가늘게 조이고 힙을 강조한 스타일로서, 그시대의 이상적인 인체미를 표현하

22) Drake, Nicholas, Fashion Illustration Today, Thames and Hudson London 7, 1987, p.7.

23) Steele, Valerie., Fashion and Eroticism, N.Y. : Oxford University Press, Ins., 1985, p.218.

였다.

이와같이 20세기 초의 인체미는 어깨와 가슴을 강조한 대형 미인상이며, 이상적인 이미지는 길스걸 스타일이다. 1900년 Gibson의 작품(그림 18)은 9등신의 폭 넓은 어깨, 풍만한 가슴, 조여진 허리이며 아우어글라스 실루엣(hourglass silhouette)이다.



(그림 18) Gibson girl Style(1898)
의복의 언어, p.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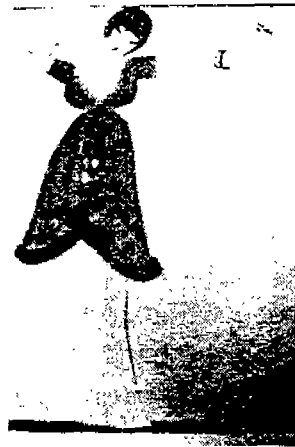
2. 1910년대

1910년대에는 힙의 부풀림이 점차 없어지고 어깨와 소매는 가능한한 직선형으로 됨으로서 인체의 선은 직선형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Poiret가 증세말기 이래로 계속되어온 여성의 꼴셋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등장²⁴⁾으로 전 시대의 과잉장식이나 인공적인 실루엣을 없애고 육체의 자연미²⁵⁾를 나타낸 결과이다.

그것은 새로운 패션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체의 이상형을 필요로 하였다. 1911년 'The Queen'의

저널리스트는 새로운 형태를 'Poiret형'이라 불렀다.²⁶⁾

따라서, 1910년대에는 힙의 부풀림이 점차 없어지고 어깨와 소매는 직선형이다. (그림 19)의 1912년 Lepape의 작품은 7등신으로 허리선의 위치가 올라가고 가슴이나 힙을 강조하지 않은 유선형으로 표현하였으며 S자형 실루엣은 Poiret에 의해



(그림 19) Lepape(1912)
A History of Fashion, p.310.

하이 웨이스트의 관형 실루엣으로 변했다.

3. 192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패션경향은 젊음지향적인 요소를 보여준다. 의상의 형태는 웨이스트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슬림한 사각형이었다. 이러한 햄라인의 유행은 1927년에 그 절정을 이루었으며 메이크업 중 특히 립스틱이 중요한 악세사리가 되었다. 머리는 보브 스타일(bob style)이나 남자처럼 짧은 형이 주종을 이루었다.²⁷⁾

1920년대 중엽이후 프랑스 파리의 유행을 일으

24) 박혜원, Paul Poiret의 Modernism,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13.

25) Roselle, B., La Mode, Paris : Imprimrie Nationale, 1980, p.108.

26) Steele, Valerie. Op. cit., p.215.

27) Barnes, Colin, Op. cit., p.15.

키고 그 시대의 풍속을 구현하게 된 상징용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르손(garçonne)이다.²⁸⁾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가르손이라는 말은 문학 작품에서 생겨난 새로운 모드로 1920년대의 대표적인 모드와 새로운 풍속을 가진 여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가르손 스타일(garçonne style)이란 소년과 같은 여성스타일로 소년처럼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의복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스타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20년대의 가르손은 마치 가르손과 같은 신체를 이상화한 것처럼 가슴과 힙을 과장하지 않고 직선적이며 길이로 긴 경향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와같은 복장은 모드사상 '복장혁명' '여성다움에 대한 개념에서 전면적인 혁명'이었다.²⁹⁾

그때까지 복식의 역사는 과거의 어떤 시대에 대한 향수 즉, 레트로(retro)모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년대는 역사상 어느 스타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 완전한 혁신시대였다.

따라서, 1920년대에는 가슴과 힙을 과장하지 않고 머리를 짧게 커트한 직선적이며 길이로 긴 경향을 강조하였다. (그림 20)의 1926년 Benito의 작품은 약 8등신으로 가슴이나 힙선 모두 강조하지 않은 더 길고 가늘프고 날씬한 젊은 형을 나타내며 로 웨이스트의 관형 실루엣이다.

4. 1930년대

1929년 세계는 경제 대공황을 겪고 그 결과로서 직업여성은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로 인하여 여성스런 분위기의 의상, 즉 장식성이 강하며 곡선미가 두드러지는 의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스커트의 길이가 전반적으로 다시 길어졌고 웨이스트라인의 위치도 정상으로 되돌아갔다.



(그림 20) Benito(1926)
Fashion drawing in Vogue, p.65.



(그림 21) Rene de Bauet-Willaumez(1939)
Fashion drawing in Vogue, p.124.

1930년대의 세계는 경제대공황의 결과로 여자답고 날씬하며 긴 스타일의 인체미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머리는 쉼을 하여 목뒤에 바싹붙여 두부를 작아보이게 하여서 키가 커보이도록 하였으며 가슴은 컵모양의 브레지어로 더욱 높게 하였다. 그리고 마치 신체의 뒷부분을 위하여 디자인한 것처럼

28) 조규화, 1920년대 가르손의 출현과 그 복식, 한국의류학회지 8(3), 1984, p.20.

29) Ibid., p.24.

림 등에서 허리부분까지 노출된 스타일이 많았고 스커트는 역사상 최초로 힙의 모양이 드러나도록 타이트했다.

따라서, 1930년대는 여자답고 날씬하며 긴 스타일이다. (그림 21)의 1939년 Willaumez의 작품은 약 8등신으로 허리선을 강조하여 가슴과 힙선이 드러나는 가늘고 긴 형이며 슬림 앤 롱 실루엣(slim & long silhouette)이다.

5. 1940년대

패션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는 패션이 상형의 현저한 변화를 나타내는 뉴 룩(new look)이었다.³⁰⁾ 뉴 룩의 창시자인 Christian Dior는 그의 컬렉션에서 좁은 어깨, 볼록한 가슴, 조인 허리에 넓고 긴 스커트를 발표했는데, 전쟁기간에 유행되었던 밀리터리 룩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여성적인 스타일이다.

뉴 룩은 전세계에 퍼졌으며 인체미는 더욱 자연스런 어깨와 좁혀진 바스트 라인으로 특징지워진다.



(그림 22) Rene de Bauet-Willaumez(1941)
The complete guide to Fashion Illustration, p.23.

따라서 1940년대에는 좁은 어깨, 볼록한 가슴, 조인 허리의 여성다운 스타일로서 인체미를 표현하였다. (그림 22)의 1941년 Rene de Bouet-Willaumez의 작품은 약 7등신이고 자연스런 어깨와 허리가 조여져 가슴이 강조되었으며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이다.

6. 1950년대

1950년대에는 요즈음과 같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에 여러가지 제한이 있었고 잡지 등에 의한 정보가 빈약하였으며 TV는 1953년부터 방영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서양의 상류사회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라이프 스타일이나 최신의 패션에 접하게 되었다. 50년대의 유명한 배우를 '코카콜라형의 대형미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사실 53년 뮤지컬 코메디영화인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에 등장한 Monroe와 Jane Russell 등이 대표적이다.

1950년대에는 골격과 근육구조를 강조한 강건해 보이는 것으로 풍부한 바스트라인을 드러내어 웨이스트라인이 더욱 가늘게 조여졌다.



(그림 23) Rene de Bauet-Willaumez(1950)
Fashion drawing in Vogue, p.192.

따라서 1950년대에는 골격과 근육구조를 강조한 강건해 보이는 것으로, (그림 23)의 1950년 Willaumez의 작품은 8.5등신으로 풍부한 가슴을 드러내어 허리는 더욱 가늘게 조여졌으며 시스 실루엣(sheath silhouette)에 속하는 오블리크 라인(oblique line)³¹⁾이다.

7. 1960년대

1960년대에는 더이상 곡선미가 강조된 여성이 아니라 전형적인 웨이스트라인, 작은 가슴 그리고 긴 다리이며 가늘고 긴 목은 유연하고 우아한 모습을 이루었다.

50년대의 클래식 체형은 후퇴하였고 영(young) 감각을 받아들였다. 영감각은 미성숙을 의미하며 모델 Twiggy가 클로즈 업되었다. Twiggy는 그 시대의 완벽한 모델이었으며, Twiggy의 특성은 그 시대의 패션 이상형에 반영되었다.

Twiggy의 신체적 특성은 가슴이 납작하고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가졌으며, 그녀가 미니를 착용하였을 때 확실히 예쁜 모습이었다. Twiggy는 귀여운 친친난만함과 젊음의 이미지를 발산하였으며 그녀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체중을 줄이게 되었다.

또한 그녀의 보이쉬 스타일(boyish style)의 커트머리와 연필로 그려진 속눈썹을 강조한 크고 짙은 눈매로 마무리한 작고 얇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³²⁾

따라서 1960년대에는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통통한 얼굴, 가늘고 긴 다리, 좁고 채 발달되지 않은 신체와 비교적 머리가 큰 어린이의 모습이며,³³⁾ 버블헤드(bubble head)가 그 시대의 이상형이었다. (그림 24)의 1960년 Marcil의 작품은 약 7등신으로 가늘고 긴 목, 납작한 가슴, 길고 가느다란 팔

다리로 표현되어 곡선미가 드러나지 않은 신체에 머리를 크게 표현하였으며 H자형 실루엣(H-silhouette)이다.



(그림 24) Evelyn Marcil(1969)
Fashion drawing in Vogue, p.205.

8. 1970년대

1970년대에는 큰 키, 납작한 가슴, 조그마한 엉덩이 그리고 넓은 어깨로 표현된다. 이것은 70년대의 경기침체현상으로 여성들은 보다 실용적이고 간편한 스타일의 의복을 즐겨입게 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복식은 직접적인 노출이 아니고, 폐쇄적이며 낭만적인데 있었다. 미니시대의 노골적인 노출과는 달리 소재의 유연성 뒤에서 느껴지는 1970년대 복식은 여성의 신체곡선을 내포하는 세련된 형태였다.

패션 예술가이며 연극 초상화가인 Richard Ely는 더 자연스러운 룩, 더 자연스러운 여성, 실제 사람들은 50년대와 60년대의 패션모델형에 대립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31) 윤수경, 20세기 서구 여성복에 나타난 Silhouette변천에 관한 고찰,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23.

32) Craik, J., Op. cit., p.84.

33) 유태순 역, 의복의 언어, 서울 : 경춘사, p.71.

패션계에 나타난 1970년대의 특성은 의복형태에만 한정되지 않고 좀 더 폭 넓게 직물이나 재단에까지 잘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의 형태는 직물의 제질감에 의해 다시한번 강조되는데, 이들 재질은 전체적으로는 30년대의 복고풍을 보이면서 60년대와는 또다른 형태의 에로틱한 면을 보였다.

따라서 1970년대에는 큰 키, 납작한 가슴, 조그마한 엉덩이 그리고 넓은 어깨로 표현된다. (그림 25)의 1972년 Pablo & Delia의 작품은 11등신으로 60년대에 비해 곡선미가 드러나 어깨가 넓고 허리는 가늘었으며 상체보다 눈에 띄게 긴다리로 표현되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이다.



(그림 25) Pablo and Delia(1972)
Fashion drawing in Vogue, p.215.

9. 1980년대

1980년대에 이르러 자유로운 모든 미국여성은 조깅, 수영, 사이클 심지어 에어로빅을 하면서 80년대로 도약하였다.

신체의 표현은 80년대 초반에 이르러 어깨에 패드를 함으로써 더욱 강조되었으며, 이 어깨의 과장은 1985년에 극도에 달했다.

그것은 건강한 신체와 근육이 이상적인 매력의 상징이 되었으며 80년대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몸

의 곡선을 드러내는 것이 많고 몸매를 과장하거나 폭 좁은 곡선형의 슬림 라인(slim line)도 보였다.

따라서 1980년대는 건강한 신체와 근육이 이상적인 매력의 상징으로서 어깨의 폭은 극도로 강조되었다. (그림 26)의 1981년 Gruau의 작품은 약 8.5등신으로 근육이 잘 발달한 마른형이며 몸의 곡선을 드러내는 슬림 실루엣이며, (그림 27)은 어깨를 과장되게 표현한 빅 룩으로 몸매를 드러내 주는 의상과 함께 유행하였다.



(그림 26) Rene Gruau(1981)
Fashion drawing in Vogue, p.224.



(그림 27) Bic Look(1986)
Fashion Illustration Today, p.160.

10. 1990년대 초

현재는 건강미를 강조한 마르고 매우 큰 형이다. (그림 28)의 1992년 Perezt의 작품은 비록 풍

만한 가슴을 표현하였으나 강건한 신체와 피부를 가진 마른형이고, (그림 29)의 1992년 Féraud의 작품은 12등신의 마르고 긴 형이다.

이와같이 분석한 결과는 <그림 III>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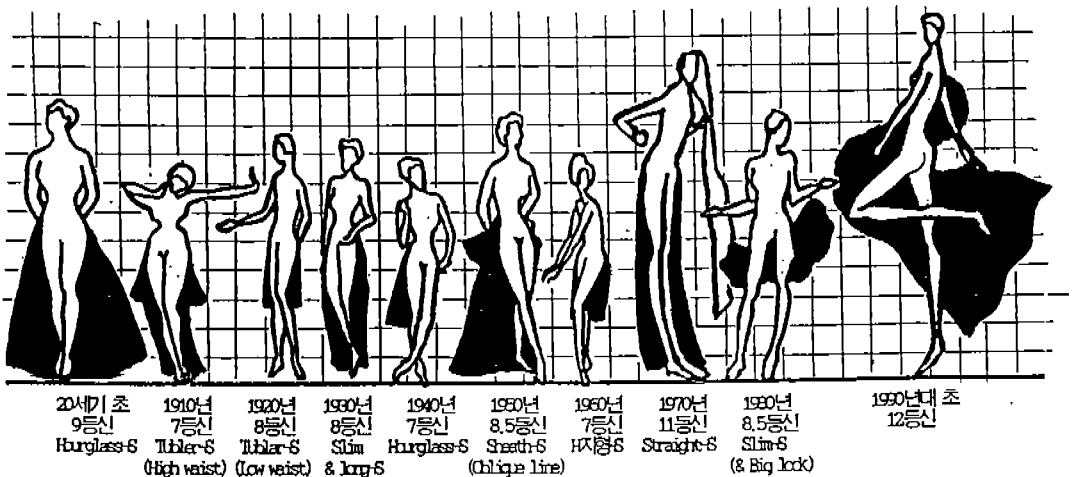


(그림 28) Thierry Perezt(1992)
Itary Vogue, p.273.



(그림 29) Louis Féraud(1992)
American Vogue, p.209.

<그림 III>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프로포션과 실루엣 분석



V. 결 론

이상에서 이 논문은 시대에 따른 인체미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인체미의 이상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미의 이상형을 추구하는 인체미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됨으로서 시대에 따른 유행 실루엣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다.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20세기 초의 인체미는 어깨와 가슴을 강조한 대형 미인상이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9등신의 폭 넓은 어깨, 풍만한 가슴, 조여진 허리이며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이다.

2. 1910년대에는 힙의 부풀림이 점차 없어지고 어깨와 소매는 직선형이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7등신으로 허리선의 위치가 올라가고 가슴이나 힙을 강조하지 않은 유선형이며, 하이 웨이스트의 관형 실루엣이다.

3. 1920년대에는 가슴을 납작하게 하고 힙을 과장하지 않은 직선형이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약 8등신으로 가슴이나 힙선 모두 강조하지 않은 더 길고 가늘프고 날씬한 젊은 형이며 로 웨이스트의 관형 실루엣이다.

4. 1930년대에는 여자답고 날씬하며 긴 스타일이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약 8등신으로 허리선을 강조하여 가슴과 힙선이 드러나는 가늘고 긴 형이며 슬립 앤 롱 실루엣이다.

5. 1940년대에는 좁은 어깨, 볼록한 가슴, 조인 허리의 여성다운 스타일이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약 7등신으로 자연스런 어깨와 허리가 조여져 가슴이 강조되었으며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이다.

6. 1950년대에는 골격과 근육구조를 강조한 강건해 보이는 것이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8.5등신으로 풍부한 가슴을 드러내어 허리는 더욱 가늘게 조여졌으며 시스 실루엣이다.

7. 1960년대에는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통통한 얼굴, 가늘고 긴 다리, 좁고 채 발달되지 않은 신

체와 비교적 머리가 큰 어린이의 모습이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약 7등신으로 가늘고 긴 목, 납작한 가슴, 길고 가느다란 팔다리로 표현되어 머리를 크게 표현하였으며 H자형 실루엣이다.

8. 1970년대에는 큰 키, 납작한 가슴, 조그마한 엉덩이 그리고 넓은 어깨이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11등신으로 어깨가 넓고 허리는 가늘었으며 스트레이트 실루엣이다.

9. 1980년대에는 건강한 신체와 근육이 이상적인 매력의 상징으로서 어깨의 폭은 극도로 강조되었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약 8.5등신으로 근육이 잘 발달한 마른형이며 슬림 실루엣이다.

10. 현재는 건강미를 강조한 마르고 매우 큰 형이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강건한 신체와 피부를 가진 12등신의 마르고 긴 형이다.

참고문헌

- 김봉구, 미술해부학, 서울 : 선일문화사, 1983.
- 김진구 이유경 이은숙 역, 가시적 자아-복식의 관점에서, 경춘사, 1990.
- 김 청, 패션과 예술, 금오출판사, 1979.
- Fashion Illustration, 라사라교육개발원, 1991.
- 박미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서울 : 경춘사, 1987.
- 박숙현 · 이정옥, 15~16세기 회화에 나타난 여성의 인체미와 복식 -혹사병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3), 1994.
- 박용만, 인체의 이상적 형태와 비례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박용숙, 현대미술의 반성적 이해, 서울 : 집문당, 1988.
- 박혜원, Paul Poiret의 Modernism,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우주형, 예술로서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이화

-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유태순 역, 의복의 언어, 서울 : 경춘사, 1986.
 - 윤수경, 20세기 서구 여성복에 나타난 Silhouette변천에 관한 고찰,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이기웅 박종만 역, 풍속의 역사Ⅱ : 르네상스, 까치, 1988.
 - 이기웅 박종만 역, 풍속의 역사Ⅳ : 부르조아의 시대, 까치, 1988.
 - 이성은, 인체의 양상에 관한 회화적 표현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임범재, 인체비례론 : 고대로 부터 르네상스까지, 서울 : 홍익대학교 출판부, 1985.
 - 조규화, 1920년대 가르손느의 출현과 그 복식, 한국의류학회지 8(3), 1984.
 - Barnes, Colin, The Complete Guide to Fashion Illustration, North Light Books, 1988.
 - Craik, Jennifer, THE FACE OF FASHION Cultural Studies in Fashion, Routledge, 1994.
 - Drake, Nicholas, Fashion Illustration Today, Thamees and Hudson London7, 1987.
 - Hollander, A.L., Seeing through clothes, N. Y : Avon Books, 1975.
 - Rolf, Elli, Entwicklungsgeschichte des kostüms, Böhlau rerlag Wien, 1979.
 - Roselle, B., La Mode, Paris : mprimerie Nationale, 1980.
 - Steele, Valerie, Fashion and Eroticism, N.Y : Oxford University Press, Ins., 1985.

ABSTRACT

A Change of Fashin Illustration by the
Ideal Type of Human Body Beau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the beauty of human body and the fashion illustration in each period. And I attained my object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features and changes of illustration which is given a vivid description of the features and development of ideal humam body beauty.

By various methods I studied this subject. First, I refered to sundry records. Secondly I investigated the fashion illustrations which are included in Vogue. On the basis of this data I grasped the ideal types of human body beauty which is founded during the social change in each 10 years. And I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the ideal type and fashion illustration which show the change of fashion.

The summary of result is as follows.

1. In the early part of the 20th century, the beauty of human body is represented with the figure of large-sized beauty which emphasize shoulder and bust. And fashion illustration show 9 life-size, broad shoulder, full bust, slim waist and hourglass silhouette.

2. In the 1910s, the swell of strength vanishes gradually and shoulder and sleeve are straight type. And fashion illustration show 7 life-size, high waist line. And that is tublar silhouette of high waist and streamline shape in which bust and hip are not emphasized.

3. In the 1920s, the ideal type of human body beauty is straight type which shows flat bust and unexaggerate hip. And fashion illustration is about 8 life-size, tublar silhouette of low waist and lunger and slimmer and young, style in which bust and hip are not emphasized.

4. In the 1930s, the ideal type is womarnly, slim and long style. Fashion illustration is about 8 life-size and slim & long silhouette in

which waist line is emphasized and bust and hip line come out.

5. In the 1940s, the ideal type is womanly style which has narrow shoulder, rich bust and slim waist. And fashion illustration is about 7 life-size and hourglass silhouette which has unartificial shoulder, slim waist and emphasized bust.

6. In the 1950s, the ideal type is that of robust health which emphasize build and muscular system. And fashion illustration is 8.5 life-size and show full bust and made waist slimmer. That is sheath silhouette.

7. In the 1960s, the ideal type is the child who has full face with large eyeball, slender and long leg: narrow and immatured body, comparatively big head. And fashion illustration is 7 life-size and show slim and long

neck, flat bust, long and slim limbs and big head. That is H type silhouette.

8. In the 1970s, the ideal type is high stature, flat breast, small hip and wide shoulders. And fashion illustration is wide shoulders and slim waist as 11 life-size and straight silhouette.

9. In the 1980s, the ideal type is extremely emphasized breadth of shoulder because healthy body and muscle are recognized as the symbol of ideal attractiveness. And fashion illustration is about 8.5 life-size and show muscular, slim type. that is slim silhouette.

10. At the present time the ideal type is slim and tall type which is emphasized healthy beauty. And fashion illustration is 12 life-size which has healthy body and skin. So that is slim and long type.